



2026. 9. 10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증시 불안하니 3% 정기에금이 낮다'..예금 1000조 시대..저축은행 금리는 '역행'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NMyulY>

한국은행이 7-8월 기준금리를 두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3%대로 올라선 반면, 저축은행은 대출자산 증가세 제한 등으로 예금금리가 오히려 하락 중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대기자금이 늘고 있어서 당분간 은행권의 자금 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은행 대출 규제에 막히자 ... 고신용자도 '대부업' 노크

매일경제

<https://zrr.kr/HVdlVf>

고신용·고소득자가 1·2금융권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자 대부업으로 이동
저신용·저소득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에서조차 금융취약계층이 우량차주에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은행·상호금융, 하반기 입주장 집단대출 금리·한도 경쟁 격화 전망

아이뉴스24

<https://zrr.kr/ehAm3o>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이 연초 중단했던 집단대출 영업을 최근 재개하면서 하반기 입주장을 둘러싼 금융권의 영업 경쟁이 격화할 전망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늘면서 잔금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사 간 금리·한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

P2P로 새 포용모델 찾는 토스... 온투업은 "제로섬 게임" 반발

머니투데이

<https://zrr.kr/KW3Vd9>

토스가 새로운 포용금융 모델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진출을 검토하면서 기존 업계와 충돌할 조짐
토스는 마이데이터를 앞세워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까지 결합한 모델을 선보이려 하는데 온투업은 이런 시도가 기존 시장 참여자의 실적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며 반발

삼성증권 9년 숙원 풀었다...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합류

매일경제

<https://zrr.kr/ITMpHE>

삼성증권이 도전한지 9년 만에 발행어음(단기금융증서) 사업 인가를 따내며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8곳으로 확대
특히 삼성증권이 강점을 가진 자산관리(WM) 고객 기반과 발행어음 사업의 결합에 관심

'삼전닉스 레버리지' 개미 탓에 투기판?...실상은 달랐다

한국경제

<https://zrr.kr/KTQkDa>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초고빈도매매(HFT) 업체에 직접시장접속(DMA)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 상반기 확인된 HFT 주문 수수료만 1400억원 이상
외국계 초단타 거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량과 증시 변동성을 키웠을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수치

'단기 실적 중심 성과평가 바뀌라'..금감원, 보험사 KPI 개선 '경고'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OEjAte>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을 주문
단기 실적 중심의 지표가 보험업계 전반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상황을 개선하라는 것

'연 300회'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 90%...실손보험 과잉진료 관리도 탄력

보험매일

<https://zrr.kr/Pwyj45>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인상
기존 365회에서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과잉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강도가 높아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싱가포르 결제업체 타자페이 인수

연합뉴스

<https://zrr.kr/raz5eU>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싱가포르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업체 타자페이(Tazapay)를 인수
타자페이는 기업간거래(B2B)를 위한 국경 간 결제 업체로, 전체 거래량의 60%가량에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포함

한·EU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실무 협의 본격화

머니투데이

<https://zrr.kr/H1KV5H>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10곳이 한-유럽 스테이블코인 송금 프로젝트의 실무진 협의를 본격화
연내 유럽 은행권이 공동발행하는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앞두고 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며, 실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관건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